| 불자 세상보기 |

청소년에게 친밀한 불교 만들자



황수경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제주교육청이 만든 '혼디거념' 팀
자살시도 학생 전담해 상담 진행
지난해 제주도 학생 자살자 全無

제주방언 혼디거념 뜻 '함께 돌봄'
불교 '요익중생' 가르침과 맞닿아

일선 사찰서 집단상담 템플스테이를
인성교육 인증 등으로 포교 활용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중에서 청소년 자살은 적지 않은 분포를 차지한다. 우리의 미래가 될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그런데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제주도는 학생 자살 '0명'을 기록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생 정신 건강 전담팀'을 만들어서 자살 시도 학생이 있으면 해당 학교로 방문했다.

학생 상담은 물론, 학부모에게 자녀와의 대화법을 알려주고, 친구들·담임교사와 만나면서 학교에 24시간 특별상담실도 설치했다. 제주도 전체 초·중·고 교장 190여명을 교육청에 불러 학생자살과 관련된 주의 사항을 알렸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한 생명도 잃지 않은 것이다.

자살에는 혼자 고립되고 단절된 심리가 작용한다. 자살시도자 상담연구를 보면 대부분이 "누군가와 상담을 했더라면 자살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한다. 힘든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과 소통은 기본적으로 가족들이 해 주어야 할 역할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는, 사회 차원에서 노력이 요청된다. 사회 지원망의 형성이다. 불교의 연기법과 자타불이의 대승정신이 절실한 것이다.

올해 조계종에서는 불자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전법에 진력한다고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만 전하려고 하기 전에, 청소년들이 절에 와서 무엇을 바랄 것인가 진솔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물질주의에 몰리면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도 취업이 보장되지 못하는 미래가 불안한 현실이고 부모에 대한 불만도 많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부모들 역시 생업에 쫓겨 자녀의 마음을 살피고 돌볼 여유가 없는 것이다. 자녀와 마음을 나누는 대화방법도 거의 배운 적이 없다. 문제아라는 학생 상담을 해 보면, 부모님과 먼저 상담해야 할 경우가 절대다수다. 부모님과 관계만 좋아져도 아이들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곤 한다.

전국의 사찰에서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마음치유 프로그램과 집단상담을 겸한 템플스테이가 가능하다.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와도 연계할 수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무료로 실시된다면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울산시는 소위 '관심 학생'의 심리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준 결과, 자살 학생 수가 대폭 감소했다. 자녀에게 상담을 받게 하라고 하면 꺼리던 학부모들도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찬성한 것이다. 불교상담개발원에서는 20년 넘게 무료로 '자비의 전화'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 사찰의 노력들도 필요하고, 이미 조계종 포교원에서 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과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실시된다면, 곧 전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엄마 아빠, 절에 가니까 마음이 편해져요"라는 말이 청소년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에는 부모가 고마운 마음으로 오게 된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한 두번 절에 오다보면 자연스럽게 법문을 접하고 신심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학생전담팀 팀명은 제주도 방언으로 '혼디거념', 즉 '함께 돌보기'라고 한다. 불교야말로 일체 중생의 고통을 소멸시키고 돌보는 요익중생의 가르침이 아닌가. 어떤 학생이라도 예외 없이, 부처님의 눈에는 모두가 평등하고 귀한 생명이다. 절망에 빠진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부처님의 자비원력이 적극적으로 실현되길 발원한다. 아이들 가슴에 생명의 봄이 환하게 피어났으면 한다.

社說

스님 국민연금 가입 지원해야

종교인들의 노후 복지를 위한 공적연금과 교단 연금체계 등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에 따르면 종교인들이 노후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수준은 평균 3.07점(5점 척도)이다. 불교가 3.37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신교 3.11점으로 뒤를 이었고, 천주교는 2.71점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문제는 걱정은 많은 데 준비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의 경우 '노후준비 수단 없음'이 45.5%로 가장 많았다. 불교의 국민연금 가입률도 31.8%로 다른 종교보다도 떨어졌다.

스님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조계종의 경우 승려복지법에 따라 기존 수행연금 중심 체계에서 국민연금 중심으로 전환해 일정 보험료를 지원하지만, 아직은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원 측은 종교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방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도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음을 지적했다.

종교인이 노후를 걱정하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현 시대에서는 종교인 노후보장은 꼭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종교인 역시 국민의 일원으로 안정적 노후는 보장받아야 할 복지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적이다.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을 위한 기본 수단이 되고, 보조적으로 종단 및 교구가 돕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금은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사부대중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에 부쳐

도난 불교문화재 매매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계종의 〈불교문화재 도난백서〉가 새롭게 리뉴얼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는 1999년 조계종이 도난된 불교문화재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 사찰로 환지본처하기 위해 처음으로 발간됐다. 그로부터 8년만의 리뉴얼이다.

이번 증보판은 1999년 이후 2015년까지 종단에 축적된 자료와 문화재청의 도난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추가로 도난이 확인된 갑장사 불상, 화엄사 경갑·어작 등 153건이 신규로 게재됐으며, 사진 있음과 없음으로 파트를 나눠 총 440건의 도난 불교문화재들이 실렸다.

불교계로서는 성보를 제대로 보호 못한 치부이기는 하지만, 도난 성보들이 경매시장에서 유통·매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백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도굴꾼과 장물업자들이 '선의취득'을 악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백서와 더불어 조계종 등 불교계는 공소시효 폐지 등의 법령 개정도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재 장물을 취득한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문화재를 경매시장에 내놓는다.

불교문화재 도난은 사찰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역사적 의미까지도 무참히 훼손하는 몰염치한 범죄행위다. 도굴꾼과 장물업자들의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 루트를 고사시켜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공소시효 폐지이다.

또한 박물관과 경매업체, 개인 컬렉터 등 전문 취급자에게는 문화재 구입 시에 출처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성보는 제자리에 있어야 가장 빛이 남을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길 바란다.



사유의 숲을 거닐며

자연이 보인 '眞空妙有 유희'

송마나 작가

열이레 달빛에 밤이 깊어간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이리저리 기웃거린다. 내가 눈처럼 나뭇가지에 내려앉아 밤바람의 친구가 되어줘야 할까 보다. 지인 하전거사(夏田居士)의 단시, '놀이'에 함께 어울리고 싶기 때문이다.

"솔가지에 얹힌 눈 한 줌 / 툭 떨어뜨리며 혼자 노는 밤바람"

만물이 잠든 고요한 밤이다. 이런 밤에 주저리주저리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는가?

단 두 줄의 짧은 시 속에 온 우주를 담았다. 우주는 하루 속에 깃들고, 하루는 낮과 밤을 껴안는다. 바람이 밤에 눈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은 낮에 솔가지에 눈이 내렸기 때문이다. 마조(馬祖)대사가 임종 직전에 읊었던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이다. 저자는 온전한 하루, 해님과 달님을 노래한다.

바람의 놀이터는 무한 공간이다. 솔가지에 얹힌 눈은 하늘로 날아오를 듯 깃털처럼 가볍다. 눈은 땅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바람은 하늘도 땅도 아닌 빈 공간에서 노닐고 있다. 하전거사는 물리적인 공간을 초극하여 무위(無爲)의 세계에서 소요(逍遙)하고 있다.

그렇다고 바람은 현존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 눈은 존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솔가지에 얹혀 있다. 어쩌면 누가 이곳에 얹어 주었는지도 모른다. 후 하고 불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다. 아슬

시의 침묵 너머로 눈 녹는 소리 들려
바람돼 '無我 놀이'에 빠져보고 싶다

아슬 위태로운 모습은 나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바람은 이런 중생을 마냥 바라만 보고 기다릴 수 없다. 달걀이 부화하려는 기미를 알아채고 어미닭이 밖에서 알을 쪼아 깨뜨리듯이 바람은 눈을 툭 건드린다. 바람의 줄탁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랑이다.

바람은 시청각 놀이를 즐긴다. 함박눈이 펑펑 쏟아져서 소나무를 덮었다면 세상은 온통 무채색이겠지만 눈이 살포시 내려앉은 소나무는 제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푸르다. 여기에 달빛마저 교교하게 비춘 밤은 시원(始原)의 적요(寂寥)를 투명하게 드러낸다. 그만, 정적(靜寂)이 깨진다. 솔가지에 얹힌 눈이 흩날리지 않고 그대로 떨어진 것이다. 바람이 눈의 본질을 해체하지 않고 공간만을 이동시켰다. 이때 피어나는 아름다운 소리. 툭, 우주가 열리는 소리이다.

눈 한 줌은 한 점 우주이다. 깊은 겨울밤을 툭 건드리는 것은 지고(至高)의 경지에 이른 선(禪)적 놀이이다. 응축된 시의 첫 행이 두 번째 행에서 기화(氣化)한다. 위와 아래,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진다. 가고 옴이 없는 바람은 이렇게 무화(無化)된 정적 속에서 삼매(三昧)의 유희를 즐긴다. 겨울 속에서 봄빛이 새어 나오고, 시의 침묵 너머로 눈 녹는 소리가 들려온다. 진공묘유(眞空妙有)이다.

나도 바람이 되어 무아(無我)의 놀이에 빠져들고 싶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